울산대학교 사회과학 논집 제1권 제1호 pp. 73~96, 1991.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 1, No. 1, pp. 73~96, 1991.
University of Ulsan.

先進經濟圈의 新興工業國에 對한 通商壓力과 이에 대한 對處方案 比較硏究

朴東烈
(經營學科)

〈要 約〉

본 硏究에서는 먼저 80년대 들어 크게 부각된 新興아시아工業國에 對한 現況을 說明하고 先進經濟圈의 通商壓力을 財貨市場 開放압력과 서비스市場 開放압력으로 나누어 論하였다. 이어서 아시아 NICS의 共同對處方案과 國際機構에서의 共同步調문제를 論한 다음, 韓國經濟의 입장에서 정책전환을 제언하였다.

Comparative Study On Trade Pressures Against NICS and Its Adjustment

Park, Dong Rhyul
Dept. of Mgt.

〈Abstract〉

This paper explains current states of the New Industrialized Countries in Asia, discusses the patterns of commercial pressure exerted by the economic bloc of developed countries, and compares the various measures taken by those NICS.

It also discusses the possible measures of cooperation among them and their limitations.

I. 서 론

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은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무역신장을 통하여 세계경제의 중요한 일각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세계경제의 다이내미즘(Dynamism)유지의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진 경제권의 각종 통상압력(예를들면 재화시장의 개방, 서비스시장의 개방, 환율조정의 문제 및 국제기구에서의 활동 등)에 시달리는 원인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부상된 신흥 아시아 공업국의 현황을 설명하고 선진경제권의 통상압력의 유형과 각 NICS의 대처방안을 비교 논하였고 이에따르는 공동협조방안 및 기타 한계점을 논하였다.

II.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통상 압력개요

1. 아시아 NICS의 부상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이하 아시아 NICS) 4경제권은 60년대 이후 연평균 8%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세계적인 경기둔화현상을 보였던 80년대에도 연평균 6~8%의 성장으로 선진경제권의 평균성장율 2~3%를 3~4배 웃도는 고도성장세를 지속하였다. (表1 참조)

〈表 1〉 아시아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율 추이

단위:%

	1970	1976	1981	1985	1986	1987	1988	1989	1인당 GNP(달러)
	~75	~80	~85						1989년
한 국	8.8	7.7	7.6	5.4	11.7	13.0	12.4	6.7	4,968
대 만	8.8	10.5	6.0	4.3	10.6	11.2	10.7	8.2	7,486
홍 콩	9.1	12.3	5.7	-0.1	11.2	13.6	12.7	7.4	12,784
싱가포르	9.5	8.7	6.1	-1.6	1.8	8.8	9.2	7.9	9,818
세계전체	3.3	3.7	2.3	2.9	3.1	2.9	2.7	2.8	

자료:IMF, IFS 각호.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89, 7.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판.

이러한 고도성장은 1960년대부터 적극적인 투자정책에 의한 산업기반의 조성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추진에 힘입은바, 아시아 NICS는 1980~86사이 연평균 세계무역신장율 3%를 크게 상회하는 12%내외의 높은 수출신장을 계속해 왔다. 이와같은 급속한 수출신장은 공산품을 중심으로한 수출증대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전세

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NICS의 수출비중은 1970년 2.3%에서 1988년 9.3%로 현저하게 증대되었다. (表2 참조)

〈表 2〉 세계 총 공산품수출중 주요국의 비중

단위:%

	1970	1973	1980	1985	1986	1987	1988
서 독	15.7	17.0	14.8	13.3	14.9	13.7	14.1
일 본	9.4	9.9	11.2	14.2	14.1	14.6	14.5
미 국	14.9	2.6	12.7	12.1	10.3	10.4	10.9
프 랑 스	6.9	7.3	7.4	6.0	6.3	6.2	5.9
이 탈 리 아	5.7	5.3	6.0	5.6	6.0	5.4	5.5
영 국	8.1	7.0	7.5	5.5	5.4	5.8	5.7
아시아NICs	2.3	3.7	5.4	7.9	8.1	8.9	9.3

자료:GATT, Int'l Trade 1987~88.

이와같은 수출비중의 체증은 무역흑자의 시현으로 나타나는바, 1980년대 중반에는 유가 및 1차산업품의 가격하락, 엔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유류대금을 비롯한 원자재 수입대금의 감소 및 수출의 급속한 체증에 힘입어, 1984년에는 홍콩, 1986년에는 한국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대만은 이미 1975년부터 흑자기조정착) 그 폭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수지 흑자에 기인하는 국내물가상승압력 및 외국으로부터의 개방압력을 감안하여 한국 등 일부국가는 국제수지흑자정책을 다소 늦추고 있는 경향이다.[1]

2. 아시아 NICS의 경제구조

수출주도형 공업화과정을 통해 경제의 구조고도화를 크게 진전시키고 있는 아시아 NICS는 선진권에서 성장기 혹은 성장 후기에 도달한 산업들에서 현재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제품은 수입대체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경공업품 및 재래기술의 중공업제품에서는 후발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2]

그리고 「대미수출특화」-「대일수입특화」로 특징지워지는 NICS의 가공무역형 산업·무역구조는 지역간 무역불균형을 심화시켜 대미무역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에서는 세계경제내에 새로이 주목받는 위치로 부각되고 있으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실현과 지역간 무역불균형의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NICS 각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表3 참조)

---

1)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년판, p. 18~25.
2) 산업연구원, 번역시리즈 62호, 「태평양시대의 전망」 p. 23 이하.

〈表 3〉 아시아 NICS의 산업구조변화 추이

단위 : %

	년 도	GNP	농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	무역 상업	운수 통신	금융	기타 서어비스
한국	1970	100	26.9	1.5	20.9	1.6	5.5	18.3	6.8	5.9	12.6
	1980	100	15.8	1.3	28.0	2.2	9.1	17.5	6.1	7.5	12.5
	1987	100	11.4	1.2	30.3	3.2	8.2	16.6	8.2	8.0	12.8
	1988	100	10.5	0.8	32.2	3.6	10.4	16.8	7.9	8.8	12.4
대만	1970	100	15.5	1.4	33.5	2.5	3.9	14.8	6.0	2.6	19.8
	1980	100	7.8	1.0	41.5	2.6	6.3	13.4	6.0	3.9	17.5
	1987	100	5.3	0.5	43.5	3.8	4.2	14.2	6.0	2.9	19.6
홍콩	1970	100	2.0	0.2	30.9	2.0	4.2	19.6	7.6	14.9	18.6
	1980	100	0.8	0.2	23.8	1.3	6.7	20.4	7.5	22.8	16.5
	1987	100	0.5	0.1	21.9	3.0	4.5	21.9	8.4	17.0	22.7
싱가	1970	100	2.3	0.4	19.7	2.8	7.3	30.2	11.2	14.2	11.7
포르	1980	100	1.4	0.4	29.0	2.3	7.0	24.3	15.0	16.9	3.7
	1987	100	0.5	0.2	28.6	2.3	6.7	17.6	13.8	28.8	3.2

자료:ADB「Key Indicators of Developing Member Countries of ADB」각호.
경제기획원,「숫자로 본 우리경제」, 1970. 7.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한국과 대만의 경우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1970년 20.9%에서 88년 32.2%로 크게 증가된 반면, 같은 기간동안 농업비중은 26.9%에서 10.5%로 격감됨으로써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로 크게 변모하였다. 대만의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비슷한 기간동안 33.5%에서 43.5%로 확대된 반면, 농업부문은 15.5%에서 5.3%로 축소되어 제조업중심의 산업국가로 발전되었다.

중계무역국인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도 전통적인 무역 및 금융을 중심으로한 서비스부문의 발전뿐 아니라 제조업부문이 이들 경제의 핵심부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콩은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비중이 70년 30.9%에서 87년 21.9%로 감소되고 있으나 높은 경제성장율을 감안하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분야로 되어있다. 이 기간동안 홍콩의 금융부문의 비중은 14.9%에서 17.0%로 높아져 동아시아지역의 무역 및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싱가포르는 60년대 후반이후 수출산업중심의 적극적인 공업화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제조업의 대GDP비중이 70년 19.7%에서 87년 28.6%로 크게 증가하여 전통적인 중계무역에서 탈피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있다. 동기간 동안 금융부문은 14.2%에서 28.8%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싱가포르의 핵심산업으로 등장, 국제금융센터로의 위치를 확립해가고 있다.

이렇게 볼때, 아시아NICS 각국은 그동안 공업화과정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공업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무역구조를 살펴보자.

아시아 NICS의 무역구조는 높은 수출의존구조, 공산품위주의 수출구조, 지역간 무역불균형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먼저 수출의존도 측면을 보면, 국내시장협소로 인한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의 추구는 재화 및 서비스수출(GDP)의 비중을 꾸준히 심화시켜왔다. (表4 참조)

〈表 4〉 아시아 NICS의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 (재화 및 서비스수출 / GDP)

	1970	1980	1985	1989
한 국	14.0	33.1	36.2	42.8
대 만	30.0	52.9	56.1	60.2
홍 콩	92.9	87.8	107.6	128.4
상가포르	81.9	165.2	130.3	158.0

자료:IMF;「National Accounts Statistics」 1989.
UN; Monthly Statistics, 각호.

각국별 수출의존도를 보면 전통적인 중계무역국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 각각 92.9%, 81.9%에서 1989년 128.4%, 158.0%로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 한국과 대만 역시 동기간 14.0%, 30.0%에서 42.8% 60.2%로 크게 높아졌다.

다음으로 수출상품구조로 볼때, 한국과 대만은 총수출중 공산품 수출비중이 1970년 77.3%, 76.7%에서 89년 92.7%, 92.5%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주요공산품 수출국으로 등장하였다.[3] 싱가포르의 경우도 동기간에 36.7%에서 66.5%로 크게 증가하였고, 홍콩도 재수출을 제외한 국내수출의 95% 이상을 공산품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表5 참조)

3) 공산품의 분류는 SITC 5,6,7,8항을 합한 것으로 추정한다.

〈表 5〉 아시아 NICS의 수출상품구조 추이

단위:%

	SITC분류 연도	식품 동식물	음료 담배	비식용원료 (연료제외)	광물성 연료	동식물성 유지	화학품	재료별 제조품	기계 운수장비	기타 제조품	비분류 품목	총수출
한국	1970	7.9	1.7	12.0	1.1	0.0	1.3	26.5	7.3	42.2	0.0	100
	1980	6.6	0.7	1.9	0.3	0.0	4.3	35.7	20.3	29.9	0.3	100
	1989	4.4	0.2	1.0	1.6	0.0	2.8	21.6	35.8	32.5	0.3	100
대만	1970	18.4	0.2	4.0	0.7	0.0	2.3	29.4	16.6	28.4	0.2	100
	1980	8.6	0.1	1.7	1.5	0.0	2.5	23.0	24.7	38.0	0.0	100
	1989	5.5	0.0	1.5	0.8	0.0	2.6	20.1	32.3	37.2	0.0	100
홍콩	1970	1.6	0.4	1.9	0.0	0.0	0.8	15.0	11.8	68.3	0.2	100
	1980	1.2	0.2	1.6	0.1	0.0	0.8	11.3	18.2	65.7	0.8	100
	1989	1.0	1.1	1.0	0.3	0.0	1.7	12.7	22.0	59.1	1.2	100
싱가	1970	11.6	1.5	30.1	17.3	2.9	2.7	8.9	11.0	5.2	8.9	100
포르	1980	4.8	0.4	11.3	28.0	2.6	3.4	8.3	26.8	6.2	7.2	100
	1989	4.5	0.6	5.0	16.2	1.3	6.2	7.5	43.6	9.2	5.8	100

자료:BOk, ROk, Monthly Balletin, 1990. 6.
Ministry of Finance, RPC, Monthly Statistics of Exports and Imports, 1990. 3.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H.K. External trade, Dec, 1988.

전반적으로 볼때, 각국 공히 SITC7항의 수출증가가 크게 눈에 띄며 홍콩·대만·한국의 경우 8항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고 한국.대만의 6항 비중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화학제품인 5항의 수출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NICS의 무역구조는 「대미수출특화」-「대일수입특화」로 대변되는 생산의 대일의존과 수요의 대미의존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表6 참조)

〈表 6〉 아시아 NICS의 대미·대일 수출의존도 추이

단위:백만달러, %

		1970	1975	1980	1985	1987	1989
한국	대미 share	47.1	30.2	26.5	35.6	38.7	38.5
	대일 share	28.2	25.4	17.4	15.0	18.2	16.9
대만	대미 share	38.1	34.3	34.1	48.1	44.2	46.8
	대일 share	14.6	13.1	11.0	11.3	13.0	12.8
홍콩	대미 share	35.7	26.4	26.2	30.8	37.3	37.4
	대일 share	7.1	6.4	4.6	4.2	4.4	4.6
싱가	대미 share	11.1	13.9	12.5	21.2	24.3	24.4
포르	대일 share	7.6	8.7	8.1	9.4	9.0	9.2

자료:IMF, DOTS 각호.

이러한 현상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자본재·중간재를 가공·조립하여 완제품을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가공무역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대미무역마찰 및 미국의 대아시아 NICS통상압력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4] 또한 각국의 시장다변화를 위한 입체적 무역정책은 후발국과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의 보이지 않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3. 통상압력개요

이와같이 아시아NICS의 급속한 공업화와 수출증가는 특히 대미무역흑자로 나타났는바, 이는 일본과 서독의 대미무역흑자와 함께 미국의 무역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무역적자 증가는 80년대 들어 낮은 저축과 높은 소비로 인한 수입수요의 증가와 미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이다.[5]

미국정부와 국민은 대외거래에서의 적자뿐만 아니라, 감세와 과다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의 증가로 인하여,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은 그동안 OECD등 각종회의, 선진국 정상회담 등의 채널을 통하여 대규모의 대미무역흑자국인 미국과 서독 등에 대하여 환율조정.금융긴축완화 등 내수진작과 수입확대를 통한 세계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80년대 들어 아시아NICS의 대미무역흑자가 커지자, 미국은 이들에게도 시장개방압력 등을 통해 무역적자 축소를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즉 미국은 대미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에게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책임분담을 보다 직접적으로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으로부터 무역불균형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받아온 일본은 자신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분산 완화시키기 위하여, NICS에게도 이제 경제규모에 상응하는 국제경제적 책임이 있음을 환기시키면서 OECD등에서 NICS의 책임분담론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NICS국가들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등의 이유로 이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NICS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하는 다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등의 아시아NICS에 가하고 있는 통상압력의 명분은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을 통하여 경제규모에 걸맞는 책임이행을 촉구하는 것인데, 이를위한 구체적 압력형태로는,

①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한 국내시장의 개방
② 관세율 인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자유화 확대
③ 각종 비관세장벽 등 수입제한적인 제도의 개선
④ 보조금 지급철폐 등 국내 산업지원제도의 축소
⑤ 인위적인 환율의 저평가 시정
⑥ 지적소유권의 보호 등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6]

---

4) 수출의존도는 총수출에 점하는 해당국 상대수출의 share에서 산출.
5) 산업연구원, 기조전환기의 정책대응, 현안분석 87-01.

그외 각국의 국내 거시경제정책의 조정과 보다 장기적으로 외환.자본.금융제도 등 경제구조의 조정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이러한 통상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GATT중심의 다자간 무역체제와 2국간의 쌍무적 무역관계 양자를 모두 이용하고 있는바, 초기에는 단순한 개방요구에 지나지 않던것이 최근에는 자국의 통상법 개정을 통하여 강력한 보복적 차원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로 돌입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이러한 통상압력의 대종을 시장개방압력(재화시장개방 및 서비스시장개방)과 평가절상압력으로 나누어 상론·비교평가하여 보기로 한다.

III. 시장개방압력

1. 재화시장 개방압력

홍콩과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중계무역의 비중이 크고 이미 자유무역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홍콩은 무관세, 싱가포르는 1~2%) 시장개방압력은 주로 한국과 대만에 집중되고 있다.

재화시장의 개방요구는 (1)외국상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좁은 의미의 수입자유화와 (2)관세율인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수입제한장벽의 완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 좁은 의미의 수입자유화가 거의 이루어져 있어 현안문제는 (1)농축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 (2)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인하 (3)수입절차의 간소화 등이다.

농축산물에 대하여 미국은 쇠고기 등 육류, 사료용곡물, 과일 및 그 통조림과 냉동과일 등에 대한 수입제한 해제와 감시해제를 요구해 왔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도 쇠고기시장의 개방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단배, 포도주, 맥주 등의 분야에서도 자국산 제품의 판매확대와 시장쉐어 확대를 위한 각종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시장개방요구와 관련하여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미국 등은 이들 NICS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FTA)을 제안하기도 하여 NICS국가들은 FTA가 체결 실시될 경우 서비스분야와 농산물부문이 크게 침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7]

이와같이 아시아 NICS에 대하여 대규모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과 서유럽 주요국들은, 아시아NICS의 무역장벽이 그들보다 높다고보고, 다양한 형태의 시장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바, 특히 미국의 수입자유화요구는 대만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다. 1985~87년중 요구품목수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370개 품목(CCCN 8단위기준)을 요구한 반면, 대만에 대한 요구품목은 소수의 공산품과 농산물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이 70년대이후 대폭적으로 시장을 개방한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83년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수입자유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87년이후 한국에 대하여 농축산물과 담배시장 등에 대해 강력히 개방을 요구하였는

6) 산업연구원, 「미국 통상전략의 전환」, KIET ISSUE PAPER 제4호, 1988.
한국무역협회, 「한국·대만의 주요통상정책 비교, 대미 통상마찰을 중심으로」, 1988.2.

7) 각항목별 주요내용은 본 보고서에 상론되었음.

데 비하여, 대만과는 담배시장 등에 대해 86년까지 개방에 합의하였다. (表7 참조)

〈表 7〉 한국.대만 수입자율화율 추이

단위:%

	한국	대만
1971	51.0	57.1
1975	49.1	97.1
1980	68.6	97.4
1983	80.4	96.5
1985	87.7	96.8
1986	91.5	97.1
1987	93.6	98.1
1988	94.0	98.1

자료:무역협회, 무역통계 1990.4.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89.

반면 미국의 관세인하압력은 한국에 대해서보다 대만에게 강하게 가해졌다. 특히 대만의 관세인하와 관련하여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73년, 86년) 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였다. 이는 대만이 70년대 초부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관세율 인상하였으며(30%이상인 품목의 비율:65년 41.3%--73년 60.2%)대만 고유의 관세평가제도인 관세가격제도를 76년부터 도입하여 실질관세부담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은 84년이후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87~88년에는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表8, 表9 참조)

〈表 8〉 양국에 대한 관세요구 현황

	한국	대만
품목수	89(422)	676

註) 1983~87.4월중, 통칭분류,
( ) 내는 CCCN 8단위.

〈表 9〉 한국·대만의 관세율 비교

	한국	대만
1979	24.9(7.4)	39.14(11.9)
1980	24.9(5.6)	31.17(9.6)
1984	21.9(6.4)	30.81(9.4)
1986	19.9(6.4)	22.83(7.7)
1987	19.3(8.1)	18.18(7.4)
1988	18.1(6.5)	11.7(3.8)
1989	19.7(7.6)	12.6(3.6)

註) ( )내는 실호관세율(관세수입/총수입)임.

이를 종합하면, 대만이 재화시장의 수입자유화를 일찍 추진하면서 관세율인하는 뒤

로 미룬 반면, 한국은 거의 동시적으로 수입자유화와 관세율인하를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80년대 미국으로부터의 시장개방관련 통상마찰의 중점은 대만의 경우 관세율인하였으며, 한국의 경우는 미국의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입자유화의 확대이었다.

위에서 본 바와같이 한국과 대만의 대미 통상압력에 대한 양국의 대응은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 재화시장 개방요구에 대한 한국 대만 두나라 혹은 NICS 네나라간의 직접적인 공동대응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2. 서비스시장 개방압력

80년대 들어 아시아NICS에 대한 선진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요구가 본격화된 이래 최근 들어서는 그 범위와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바, 특히 미국의 한국, 대만에 대한 마찰과 압력은 심각한 단계에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재화시장과 마찬가지로 중계무역 위주의 도시국가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미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시장이 상당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현재 동경, 홍콩에 이은 아시아 세번째의 국제금융센터인데 싱가포르정부는 앞으로 보험, 증권거래 등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슈퍼마켓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홍콩은 역외금융과 국내금융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방요구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본토영입을 앞두고 법정비문제에 골몰할 뿐이다. 특히 영어가 공용어인 관계로 영미법을 기초로 한 변호사, 회계사, 콘설팅업무에 대한 서비스업의 급성장이 기대된다.

문제는 한국과 대만에 대한 개방요구와 그로인한 마찰인데 그 요지를 보면 表10과 같다.[8]

8) 상게서 p. 71이후를 요약정리하고, KIET연구보고서 159호를 종합정리하여 表10을 정리하였음.

〈表 10〉 미국의 분야별 서비스시장 개방요구 내용

	한국	대만
금융시장 증권시장	· 국내 외환자본 조달을 위하여 비교적 넓게, 일찍 개방하였으므로 개방요구가 덜했음	· 풍부한 외화보유로 인하여 최근까지도 폐쇄상태이므로 한국에 비하여 마찰이 계속되고 있음
	· 미국은행 한국지점에 대한 완전 미국인 대우 요구 →84.4. 금융자유화 2개년 계획에 의거, 내국인 대우등 일부 완화	· 지점수, 지점설립여건, 영업활동제한 등의 철폐요구 →85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리스시장	· 70년대초부터 와자 및 리스기술도입 차원에서 자체개방, 88년 현재 8개 리스업체중 3개업체가 합자	· 완전폐쇄로 인하여 심한 마찰을 겪고 있음
영화시장	· 85년9월 301조 제소, 85.12월 개방합의	· 한국과 대동소이
보험시장	· 85년9월 301조 제소이후 88년 1월이후 합작투자활발	· 한국보다 마찰이 덜함
광고시장	· 88년이후 특히 올림픽이후 압력격증	· 한국과 비슷함
복합운송	· 해운대리점, 내륙운송, 해상화물운송 주선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불허단계	· 이미 허용했으므로 한국에 비해 압력이 덜함
통신시장		
회계사업 변호사업 창고업 건설·엔지니어링	시장협소로 마찰은 없으나 추후 개방요구의 쇄도가 예상됨	· 한국과 같음

자료: · 산업연구원,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와 경제성과」 KIET연구보고서 159호를 정리했음.
· 한국무역협회 상게서 p. 71 이하.

이를 볼때 금융시장, 증권시장, 리스시장 등에 대한 개방압력은 한국보다 대만에 특히 강력하며 보험시장과 복합운송시장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요구가 훨씬 강력한 경향이 있다.

이외 한국과 대만은 광고, 통신, 창고업은 물론 아직 미미한 단계인 회계, 변호사,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개방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특히 광고시장에 대한 개방요구와 압력은 대만보다 한국에 대하여 더욱 심한데, 이는 최근 한국의 광고시장이 88올림픽을 전후하여 급성장했다는 사실과 미국광고업체들의 대한진출노력이 본격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은 87년의 USTR보고서(Foreign Trade Barriers)에서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3대 광고참여금지국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을 공동대응 가능성 타진과 관련하여 비교, 평가하여 보자.

한국과 대만의 서비스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9]

9)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1989, 대만행정원, 「국민경제동향통계계보」, 1988.2를 참조하면,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평GNP에 대하여 약 4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산업비중의 유사성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에의 공동대응 가능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즉 공동대응의 가능성은 서비스산업 비중의 유사성보다는 서비스산업 각 부문의 개방정도 혹은 개방압력의 정도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전술한 바와같이 금융.리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대만에 대하여 심하며, 영화·보험·복합운송·광고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한국에 대하여 더욱 강력하다. 즉 한국과 대만이 동일한 정도의 압력을 받고 있거나 혹은 동일한 수준의 시장개방을 한 부문을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서비스시장 개방압력에 대한 양국의 부문별 공동대응 모색은 개방현황과 압력정도가 상이하므로 그 모색이 어렵다고 사료된다.

IV. 평가절상압력

먼저 과거 일본과 서독이 겪었던 환율조정압력의 경위를 살펴보자.

선진5개국은 1985년 9월 G-5회담에서 달러화 가치가 균형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어 각국간의 무역불균형, 특히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위해 필요할 때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함과 더불어 경제정책 협조를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 결과 미국의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일본 엔화와 서독마르크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의 개선기미가 없자 86년들어 NICS의 환율조정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아세안4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85년중 250억달러로 미국의 총무역적자의 18%에 달했으나 종래의 시장개방압력의 효용이 격감했다는 점과 엔화 및 마르크화의 강세로 아시아NICS의 가격경쟁력 강화가 강세통화국의 대미수출감소분에 대체됨으로써 미국의 무역수지적자의 감소에 기여치 못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와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등 무역흑자국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87년2월 선진6개국재상회의 87년9월 G-7회의 등에서 아시아 NICS에 대해 평가절상과 아울러 통화가치가 기본적인 경제여건을 반영토록 하는 외환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아시아NICS의 환율결정 메카니즘을 요약하면, 대만 싱가포르 한국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정부가 환율을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이들 국가의 환율체제가 관리변동환율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의 경우, 시장환율이 변화한다는 점에서만 변동환율제라 할 수 있을뿐 시장환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준환율이 83년10월이후 US$1=HK$7.8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고정환율제라 할 수 있다. 평가절상압력에 대한 각국의 대응입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대만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수용, 85년 3/4분기이후 87년 4/4분기까지 36.4%평가절상 하였는데 이는 미국과의 마찰회피의 측면도 있지만 내부적 요인, 즉 80년대 이후

10) 85년 3/4분기 기준으로 86년 4/4분기까지 $에 비해 # 및 DM의 가치가 명목환율기준 48.8%, 41.8% 상승하였음.

의 무역흑자누증, 원화절상의 기대심리에 따른 외환보유고증가에도 큰 원인이 있다.[11] 또한 대만의 기업들이 내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개방보다 평가절상의 우선실시가 더 유리하며, 이를 위하여 87년6월 외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는데 그 내용은 외환집중제 정지, 현물환거래에서 지정은행의 자율성확대, 선물환시장의 활성화 등이다.[12]

한편 홍콩은 무역과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되어 있고 총무역수지가 거의 균형상태에 있어, 현재의 환율이 적정수준이므로 평가절상할 이유가 없다고 계속 거부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홍콩과 비슷한 입장인데, 특히 싱가포르의 완강한 거부로 대미통상관계가 더욱 악화된 상태인데, 예를들면 미국의 대싱가포르 GSP혜택철회 보도에 대해 싱가포르는 평가절상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난하고 있다.

한국은 86년7월 미국 재무성의 공식적인 원화절상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으나, 그후 점진적 수용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초기의 부정적 입장은 당시 500억달러의 외채는 물론 무역흑자전만의 불투명으로 인한 국내의 반대 압력때문이었다.

87년들어 무역흑자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따라 미국의 요구도 강화되어 대만보다는 덜하지만 점차 가속화되어 88년 들어서는 대폭 절상되었다.[13]

한국도 대만과 같이 평가절상과 함께 금융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외환거래법을 개정하여 왔으며 그 최종단계로 88년 8월 IMF 8조국이 되었다.

이와같은 평가절상압력에 대한 각국의 대응현황을 〈表11〉로 표시할 수 있다.

〈表 11〉 환율인하 압력에 대한 아시아 4개국의 대응현황

	미국 달러에 대한 평가절상율(%)		수 용 여 부	외환 관리 규제 여부	비 고
	명목환율	실질환율			
대 만	40.6	25.1	대 폭 수 용	규 제	
홍 콩	- 0.3	10.4	거 부	자 유	IMF 8조국
싱가포르	10.1	-2.2	거 부	자 유	
한 국	20.0	14.4	대체로 수용	규제 완화	
일 본	90.1	58.6	대 폭 수 용	자 유	
서 독	66.9	54.8	대 폭 수 용	자 유	

註) ① 85년 3/4분기 기준, 88년 2/4분기 현재
② 실질변수에 있어서 홍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기타는 도매물가지수를 사용.

11) 대만의 외화보유고는 85년 226억불, 86년 463억불, 87년 778억불이며 86.87년의 해외자본유입 80억불, 100억불 원화절상으로 인한 환차익기대의 단기자본으로 추측.
12) 산업연구원, 「세계경제동향」, "대만원화절상과 정부대응조치" KIET 월간 제6권 제5호, 1988.5.
13) 87년중 한국원화는 8.8% 대만원화는 22.9% 절상되었으며, 85년 3/4분기~88년 2/4분기 사이의 절상폭은 각각 20.0%, 40.6%이다.

이를 평가하고 공동대응방안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환율인하압력에 대응하는 각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대별하면 수용입장의 대만과 한국, 거부하는 홍콩과 싱가포르로 나누어진다.

비슷한 입장의 한국과 대만도 조정시기 및 속도에 있어서 상이점이 존재하는바, 이는 대만의 경우 86년 당시 외적요인인 미국의 압력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이 존재하였던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인플레압력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주로 미국의 압력이 평가절상의 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대외적으로는 환율조정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그 움직임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결국 아시아NICS의 평가절상압력에 대한 대응은 각국의 상황여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조정결과를 보면 대만원화는 대폭절상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원화는 88년이후 소폭절상을 계속하다가 90년들어 소폭 약보합상태에 있다. 반면에 홍콩 및 싱가포르달러는 계속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NICS 4개국이 계속될 평가절상압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의존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의 요구에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88년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압력이 완화되어가고 있으나 아시아NICS의 대미흑자가 단시일내에 대폭 감소되기는 어려우므로 압력의 완화상태로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의 절상압력이 각국의 대미흑자규모와도 상관관계가 있는바, 각국의 흑자정도에 따라 미국의 압력이 다르므로 이 또한 공동보조의 어려움의 한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환율은 일국의 경제상황뿐 아니라 여타국과의 경제 및 비경제관계를 나타내는 총체적 지표라 할 수 있으므로 해당국의 균형환율 혹은 적정환율을 규정하기란 매우 곤란하다.

결론적으로 평가절상압력이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되면, 아시아NICS는 선진경제권이 특정경제권 전체에 대하여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간주, 공동으로 그들에게 항의하는 정도의 협조와, 이를 위해 중기 혹은 단기적인 NICS경제권내의 금융회의개최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V. 공동대처방안의 모색과 국제기구에서의 협조활동

1. 공동대처의 기본방향

아시아 NICS는 70년대 후반이후 선진경제권과 개도국의 중간경제그룹으로 인식되어온 이래 GSP수혜등 각종 우대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여타 책임분담을 요구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80년대들어 남미지역의 외채가 심한 국가들이 NICS에 대한 책임분담요구의 대외에서 제외되면서, 이요구가 선진국 재무장관회의, 경제정상회담 등 선진국 중심 각종 국제회담의 공동성명 등에 자주 나타남으로써 선진각국의 통상압력은 한층 강

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UR등 국제회의에서도 NICS를 여타 개도국과 달리 분류하고 아시아 NICS 자신들도 각국의 입장에 따라 강경개도국과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많은 후발 개도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위와같은 집단적인 대외압력에 대하여 NICS 개별국가 차원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4개국은 대외통상압력에 대한 국가별 대처와 함께 통상협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NICS의 공동대처방안의 모색이 긴요하다. 공동대처의 방안은 (1)기존의 각종 압력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압력대응방안과 (2)통상압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압력회피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문화적 상이성과 각국의 경제현황을 반영한 현실적 이해관계를 고려할때, 부문별 통상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의 모색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근본적인 통상압력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압력회피방안에 그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사료된다. 즉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은 기본적으로 (1)대규모의 대미무역흑자, (2)미국·EC등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에 기인하는 바, 이에대한 공동대처마련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공동대처방안을 살펴보자.

첫째, 아시아 NICS간의 교역확대, 나아가서는 인접한 아세안등과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대미 무역흑자를 낮추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세안국가들에 대한 큰 무역흑자국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 및 무역불균형해소에 적극적 공동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국간에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각료급회담 등을 통하여 아시아 NICS의 입장을 대내외에 밝힘으로써, 아시아 NICS의 세력을 결집·과시할 수 있어, 대미·대일·대EC 및 대공산권 통상협상에서 보다 큰 힘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아시아 NICS경제정상회담 등도 여타 경제권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민간경제단체·연구소 등 비정부차원에서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NICS 상호간의 이해증진은 물론, 공동대처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무역의 새로운 진로형성을 위한 OECD, GATT등 국제기구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적극화하고 사전·사후 공동보조건수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논하기로 하자.

2. 책임분담론에 대한 공동대처

80년대 들어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책임분담이라는 명목하에 아시아NICS에 가해지는 압력은 다양한 형태로 가중되어 왔고 이러한 여건하에서 아시아NICS는 자신의 경제력을 자각하게 되고, 선진경제권의 각종 경제압력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아시아NICS가 국제기구의 활동과 관련하여 공동의 대처방안을 모색할 수 있

는 분야는 (1) 우루과이라운드(이하 UR로 약칭)에서의 공동대응[14] (2) OECD와 아시아 NICS간의 경제정책협의 관련사항 혹은 OECD가입에 대한 공동대처이다.

(1) UR에서의 NICS의 공동입장

우루과이 준비위원회가 1986년 각료선언을 할때, 아시아NICS는 독자안을 내지않고 선진국 및 온건개도국이 발의한 G-32안을 지지하였다.[15] 이러한 아시아NICS의 태도는 UR초기때부터 협상의 전반적 진전에 대한 소극적, 수동적 태도의 지속을 의미한다.

현재 UR의 진행과 관련 공동보조의 필요성이 있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도국 졸업개념의 합리적 적용;졸업개념의 적용에 관한한 NICS의 이해는 일치한다. 즉 졸업개념의 적용을 물론 원하지 않으나, 받게되더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점진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문제의 해결방안은 UR에서의 GNG(상품협상그룹)협상에서 뿐아니라 GNS(서비스 협상그룹) 협상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동경라운드 프레임웍 코드에 규정된 졸업개념에 대한 공정정대한 정의가 내려지도록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

- 졸업개념의 범위
  · GSP의 수혜배제
  · 재화부문에 대한 GATT개도국 우대조항의 적용배제
  · GATT의 일반의무 준수
- · 졸업개념의 적용기준
  · 1인당 GNP로 기준을 삼지말고 복합적 변수의 도입추진

둘째, GNG협상그룹에서의 공동대처문제이다.

GNG산하 14개 협상의제에 대한 NICS의 입장은 비슷한 여건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의제에 대한 관심도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거의 완전개방상태에 있으므로 매우 미약하다. (表12 참조)

14) 대만은 GATT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UR에서의 공동대처방안 연구에서는 대만을 제외하였음.

15) G-32의 구성은 3major(미국. 일본. EC)와 G-9(EFTA 6개국 및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G-20(홍콩. 한국. ASEAN 5개국 및 기타 13개국)으로 형성되어 있다.

〈表 12〉 GNG협상그룹에 대한 아시아 NICS의 관심도

협 상 그 룹	한국	싱가포르	홍콩	비고
1. 관세	上	下	下	
2. 비관세 조치	上	下	下	
3. 열대산품	下	中	下	
4. 천연자원산품	下	中	下	
5. 섬유 및 의류	上	下	上	
6. 농산물	上	中	下	
7. GATT 조문	上	上	上	
8. 세이프가드	上	中	下	공동 대처 필요
9. MIN협정	上	上	中	
10. 보조금 상계관세	上	中	下	지속적 관심 필요
11. 분쟁해결절차	中	中	中	
12. 지적 소유권	上	上	上	공동 대처 필요
13. 무역연관투자	上	上	上	공동 대처 필요
14. GATT기능강화	上	上	上	공동 대처 필요

註) ① 上.中.下는 각각 높은관심, 보통관심, 무관심을 표시
② 판단기준은 1)각 협상에서의 태도 2)UR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시각 3)각국의 경제현황을 파악하여 구성

자료:산업연구원, 정책연구자료 BF809, 「우루구아이 라운드」, 1988.

그러므로 GNG협상에서의 공동보조 부문은 GATT의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의제 및 이번 UR에 새로 첨가된 의제라고 볼 수 있다. 즉 GATT조문,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지적소유권, 무역관련투자, GATT의 기능강화 등의 문제로 공동대응방안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GATT조문:제24조의 개선에 집중
· 세이프가드:선별성의 배제
· 보조금 · 상계관세:정의의 명확화
· 지적소유권:다자간 규범의 명확성 보장, 기술이전의 보장
· 무역관련투자:GATT의 취급범위 명확화, 관련국의 투자제한가능부문 명확화
· GATT기능강화:선진경제권의 무제한 압력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강화

이를 위하여 ①아시아NICS 주제네바 대표부의 정기회동 ②본국의 실무자간의 정기회동 ③관련 민간업계와 학계간의 교류촉진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GNS협상그룹에서의 공동대처문제이다.

表13에서와 같이 NICS는 대체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UR이 시작되기전까지 서비스교역에 대한 쟁점부각이 적었다. 그러나 세부적인 면에서 한국은 도시국가인 여타 2개국에 비하여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는 전술한 대

로 개방정도가 낮기 때문이며, 이는 협상이 진행될수록 차이점이 더욱 멀어져 공동보조의 어려움이 예견된다.

〈表 13〉 GNS협상에 관한 아시아 NICS의입장

	한 국	홍 콩	싱가포르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대한 기본입장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자유화	자유화에 기본으로 찬성	좌동
비교우위를 가지는 서비스 분야	노동관련 서비스 (건설·간호)	금융관련 서비스 회계·법률서비스	금융관계 서비스
GNS회의에 임하는 기본입장	충분한 회의를 거친뒤 다자간 규범제정	좌동	좌동
현재의 서비스 시장 개방정도	제한적	거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기타	선진·개도국의 중간입장	중간입장이면서도 선진국에 약간 기움	좌동

자료:산업연구원 상게서 및 KIET ISSUE PAPER 89-35 「GATT 11조국 이행과 한국의 수입관리」.

나아가 다자간 규범 제정시에는 한국은 가능한한 조건과 단서를 전제로 한 규범작성을 선호할 것이나 홍콩 싱가포르는 신속한 자유화를 위한 규범작성에 찬성할 것이다.

다만 두 도시국가는 개도국과의 무역비중이 크기 때문에 개도국우대조항설정에 큰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다자간규범제정시 개도국배려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의 공동보조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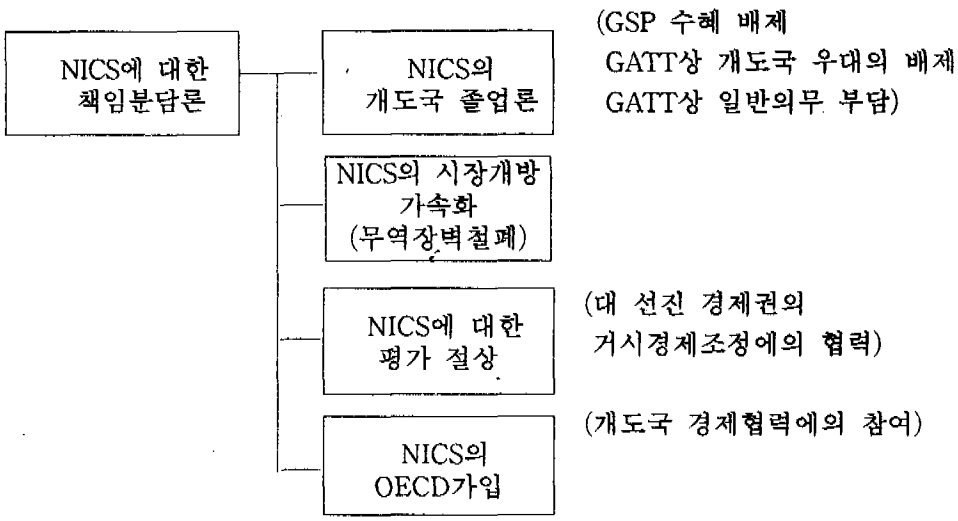
(2) OECD관련 아시아 NICS의 협조

최근에 있었던 OECD국가와 아시아NICS간의 경제협력기구설치 또는 정책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일련의 추이를 살펴보자.

- 1988년1월:OECD집행위에서 경협기구 창설제의(일본)
- 1988년3월:일본수상의 미국방문시 환태평양 OECD창설제의
- 1988년4월:IMF, IBRD합동개발위에서 G-7은 NICS의 큰 역할요구 및 IMF 잠정위에서도 책임분담론이 크게 거론
- 1988년5월:미·일·유럽위에서 한국 및 싱가포르의 OECD가입 촉구 및 OECD사무국내에 비공식 워킹그룹설치
- 1988년6월:토론토 G-7회담에서 선진권과 NICS간의 협조강화를 요구

그밖의 198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제의는 NICS의 책임분담에 관계되는바, 이를 요약하면 表14와 같다.

〈表 14〉 책임분담론의 주요내용



결국 책임분담론은 NICS의 개도국졸업부터 시작하여 OECD가입의 종국적 목적을 피력하고 있다. 즉 NICS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책임분담론의 주요내용 다시말해 선진권의 요구는 모두 수용되게 된다.

1988년4월 G-7d의 "세계무역문제를 위한 NICS의 참여권유"에 대하여 NICS 각국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 한국:G-7과 협의할 용의가 있음.
- 대만:대만원화 절상은 더이상 곤란.
- 홍콩:무역장벽이 없으므로 이미 세계무역문제에 기여하고 있음.
- 싱가포르:오히려 미국의 무성의를 지적

따라서 아시아NICS의 공동입장이 모색되기전에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대화제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대화의 성격 내용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대화제의가 책임분담압력의 공식화 내지 압력전달창구로서 기능한다면 공동으로 거부하여야 마땅하며, 이같은 기능이 아니라면 순수한 민간, 비공식 차원에서 의견교환의 성격을 갖도록 공동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가입문제를 보면, 이는 각국의 경제여건 및 경제외적여건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다.

경제적여건에 있어서는 홍콩, 싱가포르의 무역과 외환의 자유화가 OECD요구 수준에 가까우므로 두 도시국가의 가입에 가장 근접하고 있다. 한국은 OECD가입여건에서 가장 멀며 대만은 그 중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외적 여건으로 볼때, IMF와 GATT의 비회원국인 대만의 OECD가입은 가장 절실하며 그들 역시 국제정치상의 지위향상과 과다한 외환보유로 인하여 OECD가입을 실제 서두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OECD가입에 대한 공동보조란 가입시기에 대한 의견일치, 가입시 의무유보에 대한 동일부담을 의미하는바, 한국의 입장에서는 대만과는 경제

외적 측면에서, 싱가포르 홍콩과는 경제여건의 측면에서 광범위한 공동보조는 실무상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여진다. 다만 전술한 대로 OECD가입은 선진국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전환적 결정이므로 가입보다는 합리적 책임분담에 대하여 아시아 NICS의 공동보조의 지속적 수립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VI. 결론;한국경제정책의 제고

이상에서 아시아 NICS의 국제경제상의 부각과 이에따른 각종 통상압력 및 대처방안을 논하였다.

전술하였거니와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권이라하지만 그 경제적·경제외적 여건은 분석할수록 그 상이함의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경제에의 정책수립에도 많은 변수의 참작이 가해져야 한다.

우선 아시아 NICS권내의 최근 임금수준과 생산성비교를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하고저 한다.

그동안 한국시장의 규모가 선진권의 압력을 유발할 정도로 커진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성장의 견인차는 수출이고, 제조업부문의 과반을 수출에 의존하는바, 최근의 수출신장율 둔화는 경제 각 변수에 커다란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表15 참조)

〈表 15〉 수출증가율 추이

(단위:억달러, %)

구	분	1/4	2/4	3/4	4/4	'90/1월
수출액	'88년도	129	145	159	175	39
	'89년도	141	151	160	171	
증가율		28.4	9.2	4.5	0.5	-1.8	-10.0

자료:한국은행 조사월보 1990년 6월.

〈表 16〉 아시아 NICS의 명목임금 상승율 변동추이

(자국 통화표시, 단위:%)

구 분	1986	1987	1988	1989	'86~'88 평균
한 국	9.2	11.6	19.6	17.8	13.5
대 만	10.1	9.9	10.9	15.0[1]	10.3
홍 콩	4.8	8.9	8.3	11.2[2]	7.3
싱가포르	0.9	9.6	6.8	8.1	3.8

자료:각국 노동부 및 기타 관계기관 통계.

註) 1) 1989.1~9월 평균수치

2) 1989.6월 통계수치.

우리와 경쟁국인 NICS의 임금수준 및 생산성비교로 논할 수 있다.

한국의 임금상승율은 1975~87년 기간중 싱가포르 홍콩보다는 높았고 대만보다 다소 낮았었으나, 1986~88년사이 경쟁국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表16 참조) 특히 이 기간동안 NICS의 평가절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미달러로 표시한 임금상승율은 모두 자국통화표시보다 크지만,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나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表17)에서 보듯이 미달러화 기준으로 본 NICS 각국의 제

〈表 17〉 아시아 NICS의 제조업부문 임금수준 비교

(미달러화기준, US단위:달러)

구 분	1986	1987	1988	1989	1989/1986(%)
한 국	341.9	414.9	574.6	706.6[1]	2.07
대 만	394.0	538.5	605.0	738.4[1]	1.87
홍 콩	485.9	5.09.2	554.5	642.7[2]	1.32
싱가포르	454.2	486.7	544.1	605.7	1.33

자료:각국 노동부 및 기타 관계기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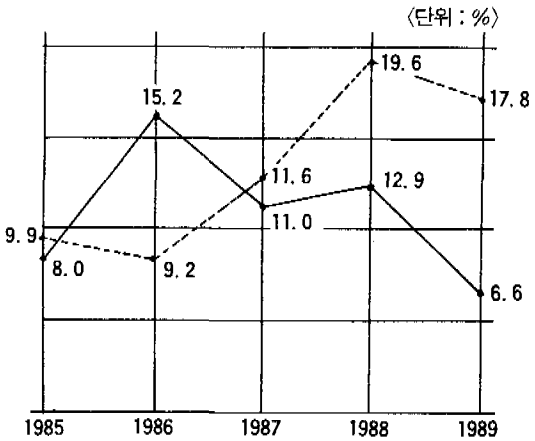
註) 1) 1989.1~9월 평균수지

2) 1989.6월 통계수치

조업체 월평균임금수준은 89년현재 한국이 707달러로 대만보다 약간 낮으나 홍콩 643달러 싱가포르 606달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1986~89년간 2.07배의 임금상승율 보였는데 이는 홍콩(1.32배) 싱가포르(1.33배)에 비해 너무 높아 가격경쟁의 기반이 많이 약화되었음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表18)에서와 같이 부가가치기준 노동생산성은 임금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表 18〉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임금상승율 추이



자료:상공부, 통계월보 1990. 2.

이는 설상가상으로 실질경쟁력의 감소를 가져와 실제 1989년에는 마이너스 12.2%의 경쟁력감소를 가져왔고 그 격차의 멀어짐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경제생산성을 비교해 볼때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NICS의 취업자 1인당 GDP 수준을 환율과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미달러화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을 100으로 볼때 대만은 156.4이

었던 것이 88년에는 대만 181.3으로 그 격차가 심대해져 국민경제생산면에서 대만 및 여타 NICS경쟁국에 크게 뒤지고 있다. (表19 참조)

〈表 19〉 아시아 NICS의 취업자 1인당 GDP비교

(미달러화 기준, US단위:달러)

구 분	한 국	대 만	홍 콩	싱가포르
1980	4,575 (100.0)	6,235 (136.3)	12,370 (270.4)	10,964 (239.7)
1986	5,409 (100.0)	8,458 (156.4)	9,217 (170.4)	18,863 (348.7)
1987	6,331 (100.0)	11.285 (178.2)	10,980 (173.4)	20,285 (320.4)
1988	7,797 (100.0)	14,139 (181.3)	11,388 (146.1)	21,793 (279.5)
연평균 증가율 81~88	7.4	11.5	-0.4	9.1

자료:경제기획원, 「주요 해외 경제지표」, 1989.

註) ( )안은 한국을 100.0으로 했을 때 각국의 비중임.

여기에 대한 종래의 전형적 대책은 노사관계의 재정립, 기술개발에의 적극투자, 생산공정자동화를 통한 품질향상, 그리고 이를 뒷바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및 국민의 현실자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지금까지 상술한 NICS에의 단결도모 및 공동대처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내적인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이 국내상황을 고려하면서 아시아 NICS의 공동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에는 그 모순점이 많으나, 국제경제현실의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특히 국제적인 남남협력[16]과 미개발 공산권에의 진출과 관련시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획기적인 정책입안도 가능하리라 본다.

아시아 NICS의 경제내외적 여건이 4개국 모두 다르다고 전술한바 있으나 한국은 인구구성, 산업구조 역사적 배경, 적응과 적극성의 국민성, 비약적인 국민의식의 향상, 국제사회에서의 도약적인 위치향상, 그리고 동서화합에서오는 남북간의 융화가능성 및 이에따르는 민족역량의 가속적 집중화와 배양 등 여타 3개국이 가질 수 없는 유리한 고지를 찾아낼 수 있으며, 특히 우수한 고급인력의 충분한 공급과 첨단기술의 자체개발가능성 등은 시베리아개발 등의 국제경제현안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나 경제여건상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희망사항일지 모르나 통일이 전제되어 민족간에 경제교류 및 협력이 현실화된다면 선진국에로

16) 산업연구원, 「남남협력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 KIET연구보고서 제73호, 1989.2.

의 도입은 다른 NICS와 차원을 달리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특히 OECD가입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고도 명확한 태도표명과 함께 NICS를 리드할 수 있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술하였거니와 G-7에서 아시아 NICS와의 대화를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궁극 목적은 OECD가입에 있는바, OECD가입은 NICS국가들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GATT에서의 모든 개도국특혜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명확한 전제조건, 즉 선진경제권의 첨단기술이전과 북한 소련 중국 등 미개발 공산권에는 투자여건조성 및 합작투자, 이를위한 각서제출 등의 선행조건을 내세움으로써 현재로써는 OECD가입의 부당성을 확고히 표명하던가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선행조건이 충족된다면 중장기계획으로 OECD가입을 고려하고 여타 아시아 NICS와 함께 공동보조정책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계, 민간업계, 정부당국의 입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산업연구원, 태평양시대와 한국, 연구총서006, 1989.
2. _____, 긴급수입 제한조치와 우리의 대응 연구보고서017, 1982.
3. _____,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연구보고서 022, 1983.
4. _____, 아세안 경제와 우리의 진출방안 연구보고서037, 1984.
5. _____, GATT를 중심으로 한 신 국제경제질서와 우리의 대응 연구보고서 040, 1984.
6. _____, 한국과 대만의 산업구조와 경제성과 연구보고서159, 1989.
7. _____, 2000년 한국무역전망과 장기정책방향 연구보고서178, 1989.
8. _____,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개발원조정책 연구보고서179, 1989.
9. _____, 우루구아이 라운드, 정책연구자료809, 1988.
10. _____, 한·미 통상현안과 중장기 개방계획 정책연구자료921, 1989.
11. _____, 대만의 관세법과 관세환급제도, 지역정보시리즈003, 1983.
12. _____, 미국의 통상정책의 전환, Issue paper004, 1987.
13. _____, GATT 11조국이행과 한국의 수입관리, Issue paper035, 1989.
14. _____,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과 우리의 대응, Issue paper016, 1987.
15. 한국무역협회, 한국·대만의 주요통상정책비교, 1988. 2.
16. _____, 무역통계, 1981~1989.
17. 마이켈허드슨, 제3세계와 미국의 경제전략, 주종항역, 일조각 1989.
18. 칼 모스쿠위츠, 한미경제교류의 변화와 전망, 이학종 공역, 세경사 1985.
19. 국제경제학회,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와 한국의 대외전략, 1984. 6.

20. 경제기획원, 경제백서 1989판.
21. _____, 경제동향보고 1981~1990.6.
22. _____, 숫자로 본 우리경제, 1990.7.
23. _____, 90년 하반기전망과 경제정책운용방향, 1990.9.